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A Study on Stage Costume Design for the Musical <Lunatic>

주저자 : 조진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Jean-Suk Cho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공동저자 : 유선아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Seon-A Yoo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뮤지컬의 개념과 역사
- 2-2. 뮤지컬 <루나틱>의 작품내용 및 인물분석

3.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

- 3-1. 디자인 과정
- 3-2. 디자인 제시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뮤지컬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서 2005년 6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3일까지 대학로에 소개한 소극장 '씨어터 일'에서 공연된 뮤지컬 <루나틱>에 본 연구자가 의상 스탭으로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이다.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방법은 대본 읽기와 제작회의를 거쳐서 연출가의 극에 대한 해석에 따라 무대의상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를 거쳐서 무대의상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그 특징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실루엣과 디테일, 색상, 소재 등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디자인 스케치 과정에서는 제작회의를 통해 상호의견이 교환되고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극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무대의상의 기능적 역할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가 뮤지컬 무대의상의 발전과 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무대의상 디자인, 인물분석, 디자인 요소, 상징적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stage costume design for the musical <Lunatic>. I have been interested in designing the musical costumes and participated as costume design staff in the <Lunatic>, a musical presented in Theater 1 located in Daehakro from June 28, 2005 to April 23, 2006, for this study. The costume design was conducted along with several processes ranges from script reading and the production meeting, to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costumes chart and schedule arrangements, the design planning, sketching, and evaluation. After that, a rehearsal for the costumes was conducted to define any shortcomings and address them. As such, the costumes of the characters were designed with symbolism, ensuring extended function of musical costumes in making the audience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theme of the drama. Furthermore it maximizes visual effects of performance and outlines the image of characters, while adding spice to the drama and increasing dramatic perfection. Costum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audience's interests in the musical, eventually contributing to its development.

Key word: stage costume design, analysis of characters, an element of design, image of symbolic

1. 서론

20세기 현대 공연예술의 총아로 손꼽히며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은 불과 10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¹⁾ 뮤지컬은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들이 하나의 극적 주제 아래 복합적인 미적 세계를 창조하는 종합 예술로서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 대중적인 음악, 작품의 오락성 등 현대인들의 성취와 기호에 잘 맞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현대의 공연예술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²⁾ 최근 국내 뮤지컬의 시장성장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오페라의 유령>, <아이다>, <갯츠>, <투란도트> 등 제작비 1백억 원대를 호가하는 초대형 뮤지컬과 오페라 공연이 수입, 공연되었다.³⁾ 공연방법은 과거에는 뮤지컬 공연을 위해 대부분 외국 공연단체가 방한하여 단기간 공연하고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공연을 위해, 외국 공연작품의 판권을 수입하여 의상, 무대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외국의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디자인을 의뢰하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프로덕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997년에는 국내 최초로 뮤지컬 <명성황후>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올렸다. 이후 국내 공연시장은 두드러지게 발전하여 창작뮤지컬 <점프>가 2006년 영국 에든버러에 초청되어 에든버러 축제 기간 중 공연예매 순위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갈채를 받았다. 또한 2006년 9월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열리는 뮤지컬 축제에 우리나라의 <마리아 마리아>가 비영어권 작품으로 초대되었다. <마리아 마리아>는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세기를 뛰어넘는 영원한 이슈,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조명한 것으로 미국인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국내 뮤지컬의 발전은 국내 뮤지컬 공연의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뮤지컬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1000

1) 구민수. (2004). 뮤지컬 <아이다>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동덕여대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2) 조미경. (2001). 뮤지컬 <라이언 킹>의 무대의상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3) 서지성. (2005). 뮤지컬 <불의 검> 공연의상 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0.

억 원이지만, 향후 총 매출 규모가 3000억 원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⁴⁾ 이러한 뮤지컬의 환경적 변화 속에서 무대의상은 등장인물의 미학적 표현 그리고 주제 전달상의 상징적 효과를 강화시켜 관객이 보다 극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공연을 위한 무대의상은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닌 무대 위에서의 하나의 장식이며, 극을 이끌어 나가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공연예술의 발전과 함께 무대의상 분야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여러 관련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무대의상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수준에 있다. 빈약한 공연계와 열악한 의상제작 예산을 빌미로 활발한 작품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뮤지컬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2005년 6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3일까지 대학로에 소재한 소극장 '씨어터 일'에서 공연된 뮤지컬 <루나틱>에 의상스텝으로 직접 참여하여 대본 읽기부터 실물 제작 및 구입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등장인물의 성격과 이미지 그리고 심리상태가 함축된 상징적의미의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대의상은 대본을 바탕으로 공연의 예술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적절히 표현하고, 작품의 성격에 맞게 디자인하여 등장인물을 창조시키는 역할을 한다.⁵⁾ 따라서 디자인의 훌륭함보다는 작품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무대의상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연의 시각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캐릭터의 이미지를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어 극에 대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극의 완성도를 높여줌으로써 관객들의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뮤지컬 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의 개념과 역사

뮤지컬의 사전적 의미는 음악이 따르는, 음악적인

4) KBS 수요기획, 2006, 12, 20.

5) 김해용. (2002). 무대의상을 위한 디자인 과정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희가극이란 뜻이다. 뮤지컬은 기악과 노래, 드라마틱한 연기, 역동적인 무용 그리고 무대 메커니즘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무대예술이다.⁶⁾ 본격적으로 뮤지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의 일이다. 1866년에 미국인에 의한 미국 최초의 뮤지컬적인 작품 <The Black Crook>이 공연되면서 뮤지컬 엑스트라버간자(Extravaganza)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미 뮤지컬적인 극을 많이 올리고 있던 유럽에서는 대개 코믹이란 말과 오페라란 말을 많이 붙여왔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1893년에 <A Gaiety Girl>이라는 작품을 올리며 뮤지컬 코메디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음악과 춤이 따라다녔던 무대극들에는 항상 뮤지컬이란 단어가 붙어 다녔는데, 그 예로 Musical Play, Musical Production, Musical Theater, Musical Interlude 등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미국 신대륙에서 다발적으로 공연되면서, 많은 관람평과 비평, 작업자들이 편의적으로 뒤의 각종 표현들을 떨쳐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뮤지컬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단어가 시간이 가면서 아예 형식을 대표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⁷⁾ 뮤지컬의 장르적인 특징은 연극과 오페라 또는 오페레타(Operetta, 작은 오페라를 의미), 무용극과 현대적 화려한 쇼가 한데 모여 있다는 데 있다. 정극, 무용, 오페라의 일반적인 요소에 대중가수의 콘서트 같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⁸⁾ 넓은 의미로는 대중적인 음악극 형식이며 좁은 의미로는 오페라의 오페레타에서 뮤지컬 드라마와 같은 작품 형식이기도 하다.⁹⁾ 이와 같이 뮤지컬은 종합적인 연극, 치밀한 구성과 극적인 긴장감에 음악적 요소와 무용의 요소가 더해진 종합예술이다. 한국에서 뮤지컬이 시작된 시기는 1966년 무렵이다. 우리나라에는 그 양식은 조금 달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뮤지컬과 유사한 공연물들이 존재하여왔다. 1930년대에 유행했던 악극, 창극, 전통 음악극 등이다. 그러나 뮤지컬은 용어 자체가 외래문화이므로 국내의 현대적인 뮤지컬 양식의 시작은 1966년 예그린 악단의 <살짜기 읍서예>를

뮤지컬이 효시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살짜기 읍서예>가 현대적인 뮤지컬의 양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전의 악극 형태와 판이하게 다른 가장 뮤지컬 적이고 뮤지컬 무대를 이해하는 서구적인 뮤지컬과 유사하기 때문이다.¹⁰⁾ 최창권 작곡의 <살짜기 읍서예>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의 전문인과 인기배우들이 동원되어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 이후로 예그린 악단은 <꽃님이 꽃님이.(1967), <대춘향전>(1968), <바다여 말하라>(1971), <화려한 산하>(1971), <종이여 울러라>(1972) 등을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하다가 1977년 서울 시립가무단(현 서울 뮤지컬 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종문화회관을 주무대로 <달빛나그네, 1978>, <우리들의 축제, 1981>, <사랑은 물이랑 타고, 1983>, <포기와 베스, 1984>, <지붕위의 바이올린, 1985>, <용이 나리샤, 1988>, <고향의 민들레, 1990>, <춤추는 도시, 1992>, <서울 사람들, 1994>, <간도 아리랑, 1995> 등을 공연하였다. 또한 민간극단에서 올린 최초의 뮤지컬은 1966년 동량 레퍼토리극단이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 <포기와 베스>이다.¹¹⁾ 1970년대 이후에는 외국 뮤지컬을 번역한 뮤지컬의 공연이 많았다. 극단 가교는 1973년 톰 존슨의 <환타스틱스>를 <철부지들>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국립극장에서 공연하였는데 오랫동안 고정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선보여 왔다.¹²⁾ 현대극장은 1977년부터 꾸준히 뮤지컬 공연에 정성을 기울여 <빠담 빠담 빠담>을 비롯해서 <피터팬, 1979>,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1980>, <사운드 오브 뮤직, 1981>, <에비타, 1981>, <올리버, 1983>,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987>, <레미제라블, 1988>등 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공연하였다. 극단 민중, 대중, 광장 등은 1983년 <아가씨와 건달들>을 공동 제작하여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로 극단 민중은 <노력하지 않고 출세하는 법, 1992>을, 극단 대중은 <셀브르의 우산, 1989>, <캐츠, 1990>, <년센스, 1991> 등을, 극단 광장도 극단 민중과 합동 공연한 <카바레, 1984>를 비롯하여 <코러스 라인, 1993>, <레미제라블, 1993>등을 공연하여 뮤지컬 붐 조성에 이바지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6) 차태호. (1998). 뮤지컬 체크리스트. 남지, p. 13.
 7) 손정섭. (2001). 뮤지컬 Oh 뮤지컬, 북 스토리, p. 34.
 8) 박용재. (1998). 뮤지컬 감상법. 대원사, p. 9.
 9) 구민수. (2004). Op. cit., p. 6.

10) 박용재. (1998). Op. cit., p. 31-32.
 11) 서지성. (2005). Op. cit., pp. 52-53.
 12) 구민수. (2004). Op. cit., pp.21.

는 대형 뮤지컬이 등장하였다. 1995년 국내에서 공연하였던 창작뮤지컬 <명성황후>를 1997년 8월 15일 부터 24일 까지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국내 뮤지컬 사상 처음으로 공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¹³⁾ 2000년대에 와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국내에 수입되었는데 <오페라의 유령>, <맘마미아>(2003), <미녀와 야수>(2004) 등이 있다. 그것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스태프 배우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동 시스템의 작품을 선보이며 대형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¹⁴⁾ 최근 2004년, 2005년의 작품을 살펴보면 <맘마미아>, <렌트>, <카바레>, <42번가>, <지킬 앤 하이드> 등의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한국의 대형 극단과 기획사에서 기획, 운영하여 이미 상품화 된 뮤지컬인 <명성황후> 그리고 <인어공주>, <둘리>와 같은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사랑은 비를 타고>, 「루나틱」과 같은 소극장 뮤지컬 등이 있다.¹⁵⁾

이상과 같이 국내 뮤지컬의 역사를 살펴볼 때, 1966년에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뮤지컬이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외국 뮤지컬을 번역한 공연이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형뮤지컬이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흥행성과 작품성이 인정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수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뮤지컬의 특징은 우리나라 뮤지컬의 특징은 대형뮤지컬과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그리고 소극장 뮤지컬 등으로 뮤지컬과 관객이 만나는 경로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2-2. 뮤지컬 <루나틱>의 작품 내용 및 인물 분석

뮤지컬 <루나틱(Lunatic)>은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코믹한 공연으로 닐 사이먼(Neil Simon) 원작의 굿 닥터(Good doctor)를 백재현¹⁶⁾이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오늘날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각색한 작품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풍자가 날카롭다. 백재현은 2003년도부터 공연을 구상한 끝에 2004년도에 무대에 올렸다. 달의 신 Luna에서 파생된 말인 루나틱은 미치광이, 정신이상자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로부터 달은 마법적인 힘의 상징이자 근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의 영기를 직접 받게 되면 미친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루나틱이 탄생하였다. 그동안 루나틱을 본 전국 관객은 대략 52만명,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율 1위로 검증받은 뮤지컬이다.¹⁷⁾

뮤지컬 <루나틱>의 작품내용은 정신병 환자들의 주요 에피소드 4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 분석은 작품내용을 중심으로 연령, 성별,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1) 작품 내용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알록달록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정신병원, 정신병 치료 중 가장 효과가 높다는 집단 발표가 시작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오게 된 사연이 공개된다.

첫 번째 에피소드: 바람둥이 기질로 세상의 모든 여자를 유혹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남자 주인공 나제비, 사랑에 관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친구의 부인을 유혹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나제비의 거짓된 사랑에 실망한 여인이 자살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그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후의 깨달음은 때늦은 후회였다. 결국 나제비는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병원에 입원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리던 남편을 잃고 나서 남편의 퇴직금을 받으러 은행을 찾아가던 여자 주인공 고독해는 그 곳에서 돈에 대해 광적인 집착과 고집을 보인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 은행직원들은 모두 놀라고, 그녀의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고집은 점점 병적인 망상으로 빠져들어서 끝내 그녀는 편집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세 번째 에피소드: 대대로 자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인 남자 주인공 무대포는 아들 무순진의 1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그것은 아들에게 성인식으로 여자와의 첫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선물을 피해보려고 저항하지만 끝내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 일 이후 에이즈에 감염돼 죽고 만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들이 죽게 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무대포는 끝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네 번째 에피소드: 지극히 평범한 남자 정상인은 관객들 속에서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형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후 형에게 오천만원

13) 구민수. (2004). Op. cit., p22.

14) 박용재. (1998). Op. cit., p. 37-38.

15) 서지성. (2005). Op. cit., 60.

16) 과거 개그 콘서트(KBS 2의 프로그램)의 개그맨

17) 여성잡지 Queen. (2008). 4월호. p. 470.

정도의 사기를 쳤다고 한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형은 자살하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형의 자살로 힘들어하는 형수를 위로해주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하여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며, 돈이 많은 친척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그의 아들을 유괴하였다고 한다. 유괴된 아이는 엄마를 찾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는다. 정상인은 그 일로 인하여 정신병자로 간주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정신병원이 아닌 감옥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상과 같이 모든 환자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마지막 장면에서 의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모두 정상인 척하는 환자들인지, 아니면 모두 미친 사람들인지 한번 쫓 주위를 돌아봐야한다고 이야기하며 막을 내린다.¹⁸⁾

2) 인물 분석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나제비는 30대의 남성으로 여자를 유혹하는데 능수능란한 매력적이고 섹시한 인물이다. 나제비의 친구인 남편은 외모에 무관심하고 털털하며 나태한 성품의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나제비의 유혹에 빠져 그와 사랑을 나누며 그의 사랑을 진심이라고 믿는 지고지순하며 여성스러운 인물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고독해는 60대의 여성으로 촌스럽고 극성맞으며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은행직원인 김대리는 젊고 친절하며 성실한 인물이다. 지점장은 늙고 다리가 불편한 인물로 신경과민 증세가 있고 권위적이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무대포는 단순하고 무식한 40대의 남성으로 아들의 18번째 생일에 여자를 선물해주는 성에 개방적인 아버지이다. 그의 아들 무순진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뜻을 거절 못하는 나약하고, 소심하며, 어린아이 같은 인물이다. 창녀들은 직업상 천박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인물이다.

네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정상인은 가장 비정상적인 사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이 미쳤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정상인은 관객과 같은 위치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단 치료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다.

18) 팜프렛. (2006). 루나틱 컴퍼니

이상과 같은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표 1] 과 같다.

인물	성별	나이	특징
나제비	남	30대	매력적이고 섹시함
남편	남	30대	털털하고 나태함
부인	남	30대	지고지순함
고독해	여	60대	돈에 강한 집착 촌스러움
김대리	남	30대	성실함
지점장	남	50대	신경과민
무대포	남	40대	단순무식 성에 개방적
무순진	남	10대	나약하고 소심 어린아이 같음
창녀	여	20대	천박, 섹시함
정상인	남	추측 불가	관객 속에서 등장
의사	여	50대	정신과 의사
환자들	남, 여	다양	불안, 비정상적인 사람들

[표 1] 뮤지컬 <루나틱>의 등장인물 분석

3.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

2005년 6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3일까지 대학로에 소재한 소극장 ‘씨어터 일’에서 공연된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디자인 과정

무대의상 디자인 과정은 언어의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구체화 시키고, 구체화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최종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을 말한다.¹⁹⁾ 공연을 위한 무대의상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계획과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과정이 요구된다. 무대의상을 위한 디자인 과정은 일반적으로 대본읽기, 제작회의, 자료수집 및 조사, 의상 차트, 스케줄표, 의상디자인 계획, 디자인 스케치, 작업평가, 제작과정, 의상 리허설의 단계를 거친다.²⁰⁾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 과정은 대본읽기와 제작회의를 거쳐서 연출가의 극에 대한 해석에 따라 무대의상의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를 거쳐서 무대 의상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의 특징

19) Robert L. Benedetti. 1985). The Director at Work,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p. 76.

20) 변지현. (2005). 오페라 <파우스트>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테일, 색상, 소재 등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디자인 스케치 과정에서는 제작회의를 통해 상호의견이 교환되고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뮤지컬 <루나틱>이 공연되는 극장 '씨어터 일'의 규모는 [그림 1]과 같이 관객과 무대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1미터 정도로 소규모의 극장인 점을 고려하여 무대상 디자인 컨셉은 대규모의 뮤지컬 공연 의상과는 달리 디자인의 과장성은 피하기로 하였다.



[그림 1] 뮤지컬 「루나틱」의 좌석배치도

3-2. 디자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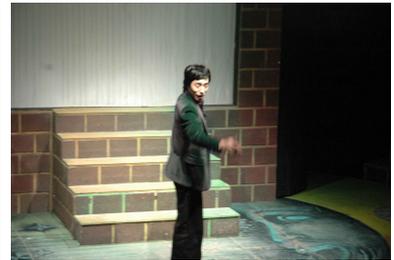
1)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나제비는 여자를 유혹하는 데 능수능란한 인물로서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짙은 녹색의 몸에 꼭 맞는 벨벳재킷과 검은색의 판탈롱 바지, 투명소재의 셔츠를 디자인하였다. 벨벳 소재는 우아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소재로 드레스 등에 많이 사용된다. 평상시에 남성들은 벨벳 소재의 재킷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이 벨벳 재킷을 착용하였을 경우, 매우 화려해보이며 패셔너블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벨벳 재킷을 디자인함으로써 공작새처럼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상징하였다. 그리고 바지는 춤을 출 때 다리의 움직임을 더욱 리드미컬해 보이도록 아랫단 폭이 넓은 판탈롱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투명소재의 셔츠는 인체를 간접적으로 비쳐 보임으로써 관능적 이미지를 준다. 섹시한 매력을 표현하고자 디자인하였다. 또한 색상 배색에 있어서도 재킷과 바지의 배색을 짙은 녹색과 검정색으로 매치함으로써 세련된 패션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을 상징하였다. 이와 같이 짙은 녹색의 벨벳 재킷, 투명소재의 셔츠, 검은색 판탈롱 바지를 디자인함으로써 나제비의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한 모습

은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2] 디자인



[그림 3] 나제비의 모습



[그림 4] 나제비의 독무

나제비의 친구인 남편은 나제비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외모에 무관심하고 털털하며 나태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주황색 후드 운동복 상의에 흰색 라운더셔츠, 그리고 녹색 체크무늬의 파자마 바지 등을 디자인하였다. 후드가 달린 운동복이나 흰색 라운더셔츠 등은 남성들이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 주로 입는 의상이다. 평상복으로 운동복을 입으면 패션에 무관심하거나 털털한 사람처럼 보인다. 남편의 의상으로 후드가 달린 운동복을 디자인함으로써 외모에 무관심한 남편의 심리를 상징하였다. 또한 녹색의 평퍼짐한 체크무늬 파자마 바지를 디자인함으로써 남편의 평퍼짐한 모습을 그리고 색상매치에서도 상의의 주황색과 하의의 녹색이라는 보색대비로 매치함으로써 촌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나제비의 유혹의 대상인 부인은 나제비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마음을 진심이라 믿고 사랑을 나누는 인물로서 지고지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와 흰색의 볼레로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꽃무늬 원피스는 여성미를 더욱 돋보여 주는 디자인으로 화사한 꽃무늬는 사랑에 빠져있는 부인의 마음을 상징한다. 원피스 위에 흰색의 볼레로를 겹쳐 입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한 모습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남편과 부인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6] 부인, 남편, 나제비의 모습

2)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고독해 여사는 억척스럽고 고집이 센 인물로서 남편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이로 인하여 정신이상인 인물이다. 그녀의 고집스럽고 촌스럽고 극성맞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험렁한 분홍색 스웨터에 보라색 물방울무늬의 허드레 바지를 디자인하였으며, 고독해 여사가 정상이 아닌 정신병 환자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고독해 여사의 60세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빨간색의 섹시한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허드레 바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로 부터 서민들이 작업복으로 많이 착용해왔던 옷으로 지금도 시장과 같은 곳에서 할머니들이 작업복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다. 이러한 허드레 바지에 험렁한 분홍색 스웨터를 디자인함으로써 고독해 여사의 불행하고 고단했던 시절을 상징하였다. 또한 드레스의 강렬한 빨간색을 통해서 고독해 여사의 열정과 광기, 집착을 상징하였으며 섹시한 드레스 형태를 통해서 고독해 여사가 정상이 아닌 정신병환자임을 상징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한 모습은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림 7] 고독해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8] 고독해의 모습



[그림 9] 고독해의 빨간 드레스

은행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젊고 성실한 인물이다. 그의 젊고 친절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분홍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와이셔츠와 바지는 직장인들이 흔히 착용하는 의복이다. 김대리가 지점장에 비해 젊고 친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와이셔츠의 색상과 따뜻한 이미지의 분홍색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팔에 토시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은행이라는 보수적인 직장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검은색 빨테 안경을 디자인하였다. 지점장은 김대리에 비해 나이도 많고 다친 다리로 인하여 신경과민인 인물로서 그의 권위적이고 히스테릭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푸른색 와이셔츠에 환자복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지점장의 와이셔츠 색상을 김대리의 분홍색 와이셔츠 색상과 반대인 푸른색을 디자인함으로써 김대리의 젊음과 반대되는 늙음, 그리고 친절함과 반대되는 권위 등을 상징하였다. 환자복바지와 다리 깍스는 다리 다친 환자임을 상징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모습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0] 김대리와 지점장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11] 김대리와 지점장의 모습

3) 세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무대포는 단순하고 무식하며 성에 개방적인 성향이 있는 아버지이다. 그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강박증이라는 정신병을 갖게 되는 인물로서 그의 단순무식하고 성에 개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빅 사이즈의 레자코트와 슈퍼맨 무늬의 티셔츠, 타이트한 가죽바지를 디자인하였다. 빅 사이즈의 코트는 몸에 비해 훨씬 큰 카키색의 비닐 소재로 보통 사람들이 잘 착용하지 않는 촌스러운 의상이다. 가죽팬츠는 보통사람들보다는 연예인들이 무대의상으로 또는 바이크(Bike)족들이 주로 바이크 탈 때 착용하는 의상으로 착용했을 때 강한 느낌을 준다. 빅 사이즈의 레자코트나 가죽바지는 패션 감각이 없고 무식한 이미지를 상징하였다. 또한 어른에게 어울리지 않는 슈퍼맨 무늬의 티셔츠는 아들과 커플룩으로 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였다.

무대포의 아들 무순진은 18세의 순진한 청소년으로 모든 결정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면이 있다. 이러한 어린아이 같고 나약하고 소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슈퍼맨 티셔츠와 반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슈퍼맨 무늬의 티셔츠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티셔츠로 무대포의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상징하기 위해 슈퍼맨 무늬 티셔츠를 디자인하였다. 특히 노란색을 사용함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야구 모자를 거꾸로 착용시킴으로써 나이는 18세이지만 어린 아

이같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한 모습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2] 무대포와 무순진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13] 무대포와 무순진의 모습

창녀들은 직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천박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14]와 같이 어깨와 팔을 노출한 상의와 다리를 최대한으로 노출한 핫팬츠를 디자인하였다. 색상도 빨간색과 검정색의 매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다 인체노출과 빨강색과 검정색의 매치는 천박함과 섹시함을 상징하였다. 또한 검정색의 망사 스타킹을 착용시켜 섹시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실제 착용한 모습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4] 창녀들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15] 창녀들의 모습

4) 네 번째 에피소드

네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정상인은 관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인물로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

라고 억지를 부리는 정신병 환자이다. 따라서 관객 속에서 관객과 전혀 구별되지 않도록 [그림 16]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빨간색 드레스를 디자인함으로써 정상인 스스로 정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상담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환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정상인이 빨간색 드레스를 착용할 때, 극적인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흰색 가발과 검은색 긴 장갑, 망사 스타킹, 빨간색 하이힐을 매치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한 모습은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그림 16] 정상인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17] 정상인의 모습



[그림 18] 정상인의 빨간 드레스

5) 기타 인물

기타 인물로는 극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의사와 환자들이 있다. 의사는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 19]와 같이 흰 가운과 청진기를 디자인하였으며 환자들은 흰색에 연두색의 잔잔한 꽃무늬가 있고 연두색 라인이 장식되어 있는 환자복을 디자인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무대 위에서 실제 착용한

모습은 [그림 20]과 같다.



[그림 19] 의사와 환자의 디자인 스케치



[그림 20] 의사와 환자들의 모습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4월 26일 까지 대학로에 소재한 극장 '씨어터 일'에서 공연된 뮤지컬 <루나틱>의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서 대본을 토대로 하여 뮤지컬 <루나틱>의 등장인물들의 특징 및 성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이에 맞게 등장인물들의 극중 성격과 극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특징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테일, 색상, 소재 등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나제비의 의상은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모습으로 매혹적이며,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벨벳 소재의 녹색 재킷과 투명한 소재의 검은색 셔츠, 그리고 춤추는 모습을 리드미컬하게 보여주도록 검은색 판타롱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벨벳소재와 투명소재는 매혹과 섹시함을 상징하며, 검은색 바지에 녹색재킷의 매치는 패션의 세련된 감각을 상징한다. 매력적이고 세련된 나제비의 모습과 반대되는 남편의 의상은 외모에 무관심하고 털털하며 무능력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면소재의 주황색 후드달린 운동복 상의와 라운드넥의 흰색 티셔츠, 그리고 녹색 체크무늬의 통이 넓은 파자마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운동복 스타일의 상의와 파자마처럼 통이 넓은 편한 바지, 그리고 주

황색과 녹색의 보색대비는 외모에 무관심하고 그저 편한 스타일만을 선호하는 털털하고 평범한 이미지를 상징한다. 새로운 연애감정에 현혹되는 부인의 의상은 화사한 꽃무늬의 원피스와 볼레로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화사한 꽃무늬는 새로운 연애감정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부인을 상징한다.

2.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고독해의 의상은 고단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노인의 촌스럽고 억척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험렁한 분홍색 스웨터와 물방울무늬의 허드레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지금도 시장과 같은 곳을 가면 노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허드레 바지는 서민층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의상으로 촌스럽고 억척스러운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고독해가 정신이상인 되었을 때의 광기어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비즈와 레이스로 화려하게 장식된 빨간색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60대의 할머니가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착용한 모습은 정신병자임을 상징한다. 김대리와 지점장의 의상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 김대리는 분홍색 와이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정장바지를 디자인하였으며, 지점장은 푸른색 와이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다친 다리를 표현하기 위해 깃스를 한 다리와 환자복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와이셔츠의 분홍색은 김대리의 젊고 친절함을, 분홍색과 반대되는 푸른색은 김대리와 반대되는 지점장의 성품을 상징한다.

3.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무대포의 의상은 단순무식하며 성에 개방적이나 아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자상한 일면이 있는 인물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빅 사이즈의 카키색 레저코트와 파란색 슈퍼맨 티셔츠, 그리고 타이트한 가죽바지를 디자인하였다. 무대포의 어울리지 않는 의상코디는 무대포의 무식함을 상징하며 타이트한 가죽바지는 거친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아들의 티셔츠와 동일한 슈퍼맨 무늬의 티셔츠를 디자인함으로써 아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심리를 상징하였다. 무대포의 아들 무순진의 의상은 18세의 청소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임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의 슈퍼맨 티셔츠와 면 반바지, 그리고 거꾸로 쓴 야구 모자를 디자인하였다. 슈퍼맨 무늬의 티셔츠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티셔츠로 무순진이 18세이지만 정신연령이 아직도 어린아이임을 상징하며 반바지와 거꾸로 쓴 야구모자는 의젓한 일면보다는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상징한다. 창녀들의 의상은 윤락가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천박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어깨와 팔이 노출되는 상의와 다리의 노출이 극대화되는 핫팬

츠를 디자인하였다. 어깨나 팔, 다리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의상은 윤락녀라는 직업을 상징한다. 또한 빨간색과 검은색의 매치, 검은색 망사 스타킹, 하이힐 등은 섹시한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다.

4. 네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정상인의 의상은 관객 속에서 관객과 전혀 구분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라운드 넥의 녹색 티셔츠와 청바지로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정상인 역시 강박증이라는 정신병 환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지극히 평범한 남성에게 강렬한 빨간색 드레스를 착용시킴으로써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상징하였다.

5. 기타 등장인물로는 의사와 무리지어 다니는 환자들이 있다. 의사의 의상은 흰색 면 가운데 청진기를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의상은 흰색바탕에 잔잔한 연두색 꽃무늬가 있고 연두색의 트리밍으로 장식된 면소재의 일반적인 환자복으로 디자인하였다. 흰 가운데 청진기는 의사를 그리고 환자복은 환자를 상징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극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무대의상의 기능적 역할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뮤지컬 무대의상의 발전과 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상태나 극의 분위기를 상징하기 위해 의복의 형태나 색상, 소재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과연 관객들이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해석하였는지 그 결과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의도와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의 반응을 함께 연구할 것과 소품과 코디네이션 차트도 보충되어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하리. (2003). 어린이 뮤지컬 무대의상 연구-MBC 뮤지컬 인어공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민수. (2004). 뮤지컬 <아이디>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용. (2002). 무대의상을 위한 디자인과정 연구-뮤지컬 The Fantasticks 공연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재. (1998). 뮤지컬 감상법. 대원사.
- 변지현. (2005). 오페라 <파우스트> 무대의상의 현

대적 디자인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지성. (2005). 뮤지컬 <불의 검> 공연의상 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정섭. (2002). 뮤지컬 Oh 뮤지컬. 북 스토리.
-장혜숙. (2003). 창조적 무대의상을 위한 표면 표현
기법 연구. 한국연극학, 21(1).
-조미경. (2001). 뮤지컬 <라이언 킹>의 무대의상 분
석.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태호. (1998). 뮤지컬 체크리스트. 남지.
-여성잡지. (2008). 권. 4월호.
-팜프렛. (2006). 루나틱 컴퍼니.
-KBS. (2006). 수요기획.
-Beneditti, L. Robert. (1985). The Director at Work.
Prentice-Hall Inc.